



한국전파산업 진흥협회장
정 몽 현 / 본회 비상근부회장
현대전자산업(주) 회장

전파산업의 전망과 대응방향

전파산업은 차세대의 통신산업과 정보화를 주도할 높은 시장성과 경제성이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주요 통신수단이 전파통신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며, 통신기술의 발달이 방대한 정보의 축적과 신속한 처리는 물론 전달능력의 증대로 사회전반에 걸친 생산성과 합리화를 진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파통신은 최근들어 폭발적인 수요증가와 함께 급속한 기술의 발달이 거듭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전파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셀룰라 기술을 개발해 실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무선데이터통신, PCN, 무선 LAN 등의 서비스가 상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파산업분야를 소홀히 다루어왔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전파산업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전파산업은 무선기기의 단말기 생산위주로 발전됨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낮은 하급제품의 양산과 생산기술 및 OEM 제품의 도입 또는 시스템 전체의

도입으로 기술의 토착화 및 신기술 축적이 어려웠으며, 국내시장의 협소와 기술인력 부족현상은 전파산업의 발전을 더욱 더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전파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 전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리위주의 전파정책을 진흥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산·학·연에서는 기술개발과 보급확대를 위한 투자와 연구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파산업분야에서는 전파관련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과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선진기술의 확보와 신기술의 개발이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자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공급능력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변복조기술의 개발로 채널용량을 기존의 아날로그방식보다 대폭 증대시킬 수 있는 디지털 셀룰라 기술의 확보와 개발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 대

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국내 전파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서는 전파관련 시스템과 제품의 표준화 및 국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규격을 제정함으로써 외국기업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뒤떨어진 부품분야의 진흥과 함께 제품의 국산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1992년은 우리 전파산업계에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방식인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 등 향후 이동통신 발전 방향이 결정되고, 한국이동통신에 이어 이동전화와 무선호출 등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공급할 제2이동통신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협회는 1992년을 국내 전파산업의 제2의 출발점으로 보고 향후 정보화 사회의 핵심산업으로 등장할 전파산업의 안정된 기틀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협회는 차세대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TDMA, E-TDMA, CDMA, 각종 위성통신 서비스

◆ 壬申年 各界의 設計를 들어본다 / 新年특집 ◆

등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전파의 이용촉진 및 보급확산을 위해 대 국민 홍보활동에도 역점을 둘 것입니다.

한편 전파관련 첨단분야의 기

술개발은 소재 및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국내의 연구인력 부족현상을 감안해 우리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 전자산업과 전자공업인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